

목포대양산단 ‘김 산업 메카’ 부상

마른김·조미김 제조 15개 업체와 입주계약
올 5억달러 수출...공동브랜드·마케팅 지원

목포대양산단이 일본 기업을 비롯한 마른김·조미김을 가공하는 15개 업체와 입주계약을 체결하면서 ‘김 산업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이 수산식품으로 각광을 받으며 연관 산업이 성장하면서 목포의 산업 구조가 기존 조선업 중심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산업으로 혁신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목포시는 13일 “마른김 가공업체 9개소와 조미김 업체 6개소가 대양산단 입주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목포시는 일본기업인 아사쿠라 노리텐(株)가 지난 8월 입주 계약을 체결하고, 최근 목포를 방문해 박흥률 목포시장 등과 면담하고 향후 투자 방안을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가공 업체와의 잇따른 계약은 40%에 육박한 대양산단 분양률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조미김은 지난 7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총회에서 지역규격으로 최종 채택된 바 있다. 김 제품 규격화는 세계 최초로 해조류에 대한 국제규격으로 우리나라 김의 국제적 위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우리나라 김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시장을 넓혀가고 있어 대양산단의 김 산업은 미래가 밝을 것으로 전망된다.

목포시의 김 수출액은 지난 2010년 1억달러에서 2016년 3억천만달러로 대폭 증가했고 올해는 5억달러로 예상되는 등 매년 급성장하고 있는 추세다.



국내·외 김 가공 업체가 속속 입주하면서 목포 대양산단이 김 산업 메카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은 대양산단 전경. /목포시 제공

이에 따라 목포시는 목포 김을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를 대표하는 썬키스트, 뉴질랜드 키위를 대표하는 제스프리 등 세계적인 브랜드 제품처럼 고부가가치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공동브랜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흥률 목포시장은 “목포 김이 세계

적인 브랜드로 발돋움하기 위해 연구기관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를 통해 김 제품 품질을 관리하고 마케팅을 지원하겠다”며 “앞으로 대양산단에 수산식품 수출단지가 조성되면 목포의 김 산업은 시너지 효과를 받아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이다”고 말했다. /목포=정혜선기자

신안 공공기관 청렴도 지난해比 58단계 상승

신안군은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전국 최고 순위 상승을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신안군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2017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지난해 대비 무려 58단계를 수치 상승했다. 평가대상인 573개 공공기관 중 최고의 순위 상승이다.

특히 지난해 청렴도 평가결과 7.90점으로 전년 대비 0.90점 상승해 전국 군 평균보다 0.36점 높은 수준으로 평가됐다. 또 5단계로 분류된 공공기관 청렴등급에서 2등급(전년도 5등급)으로 분류됐다.

이러한 괄목할만한 청렴도의 향상은 지속적으로 부진한 청렴도 평가를 견뎌내며 받아들이며, 올해를 ‘청렴 신안 만들기’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청렴교육을 시작으로 ▲청렴조례 제정 ▲청렴신고함 설치 ▲업무추진비 전면공개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활성화 등 전 공직자 스스로가 부단한 노력을 펼친 결과로 분석된다.

고길호 신안군수는 “민선6기의 시작과 함께 뼈를 깎는 노력으로 채무 전액을 상환해 ‘빚 없는 군’이 된 것과 ‘청렴한 신안’으로 평가받은 것이 너무도 자랑스럽다”며 “함께 노력해준 모든 공직자와 군민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신안=양훈기자



해남 시설하우스에서 부추를 수확하는 농민들. /해남군 제공

해남 특화작목 겨울부추 본격 출하

해남군이 권역별 특화작목으로 육성 중인 시설부추가 본격적으로 출하되고 있다.

부추는 연중 수확이 가능한 작목이지만 해남 겨울부추는 고품질 유지를 위해 겨울철에만 수확, 11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출하하고 있다. 시설하우스에서 재배되는 해남 겨울부추는 잎이 넓어 쉽게 물러지지 않고 향기와 당도가 높아 최고

의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올해는 식자재 유통기업인 CJ프레시웨이와 계약을 체결해 만두소용으로 매달 25~28t 가량을 출하할 계획으로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도 청신호가 되고 있다.

해남지역에서는 복일면을 중심으로 22농가가 20ha의 면적에서 시설부추를 재배, 연간 36억여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부추는 한번 파종하면 3~4년 연속 재배가 가능하고, 겨울철 기준 40일이면 재 수확할 수 있어 연간 4~5차례의 겨울 부추 수확이 이뤄진다.

해남군은 내년부터 2020년까지 10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 공동집하·선별장을 조성해 시설부추 연중생산 체계 구축,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해남=김병용 기자



현대삼호중공업 윤문균 사장(오른쪽 두번째)과 노동조합 손형림 지회장 등 회사와 노조 관계자들이 지난 12일 영암군 삼호읍 소재 소림학교에서 열린 ‘사랑의 우수리 나눔 행사’에 참석해 봉사활동에 나섰다.

영암 현대삼호重, 나눔 봉사 ‘훈훈’

급여 1천원 미만 기금 조성·5년간 8천만원 기부

현대삼호중공업 노사가 임직원들의 급여 우수리를 모아 기부 활동을 전개해 연말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지난 12일 회사 인근에 위치한 장애인 특수학교인 소림학교에서 급식 봉사활동과 후원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현대삼호중공업 임직원들이 급여 우수리를 모아 진행하는 만큼, 대표이사인 윤문균 사장과 노동조합 손형림 지회장 등 회사와 노조 관계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진행됐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지난 2012년부터 임직원들이 1천원 미만의 끝잔을

모아 급여 우수리 봉사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매년 노사가 기금 활용 방안을 협의해 지역사회 봉사활동과 기부를 추진하고 있다.

2012년 이래 총 6천여만원을 지역 사회에 기부했으며, 올해는 2천만원의 기금을 마련해 소림학교 등 총 10여개소의 지역 사회복지시설에 후원품 전달과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탁에 나섰다.

회사의 한 관계자는 “어려운 회사 사정에도 기금 조성에 기여해 동참해준 임직원들에게 감사의 전한다”며 “임직원들도 노사가 한마음으로 뜻깊은 용도로 기금을 활용할 기꺼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암=이봉영기자

강진 민·관 생활자기 신상품 전시회

고려청자박물관 내일부터 8일간

강진 고려청자박물관이 15일부터 ‘청자, 일상으로 초대’라는 주제로 2017년 민·관 생활자기 신상품 전시회를 개최한다.

〈사진〉 이번 전시회는 강진군 시문학파기념관 1층 북카페에서 22일까지 8일 동안 진행된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민·관 생활자기 신상품 전시회는 매년 개최됐던 박물관 도예가 전시회와는 다르게 민·관 협업으로 개발된 신상품을 선보인다.

올 한 해 동안 강진의 관요와 민간요에서 선정한 30여종을 전시, 청자를 좋아하는 국민들에게 청자의 아름다움과 청자상품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리를 만든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이번 전시회를 시작으로 강진의 다양한 민간요들의 창의성과 관요의 전문성을 융합해 독특한 청자 디자인 개발과 강진만의 관광 상품 창출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고려청자박물관은 지난 1월부터 신상품 개발 TF팀을 운영, 강진 지역 26개의 민간요를 지원하며, 다양한 신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강진=정영록기자



(주)스카이 장례식장

문의:062)951-1004(천사)



스카이 장례식장



품격있는 시설!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차이
부담없는 장례비용!!

1,000여대 동시 주차 / 수완동 자동차 매매단지 입구